

壬辰倭亂과 釜山抗戰

金 錫 禧

(釜山大學校 教授)

1. 머 리 말
2. 釜山鎮城 戰鬪
3. 東萊城 戰鬪
4. 多大浦鎮 戰鬪
5. 水營城 戰鬪
6. 東萊府民의 義兵活動
7. 釜山浦 海戰
8. 맺 음 말

1. 머 리 말

올해는 16세기말 동아시아를 뒤흔들었던 壬辰倭亂 발발 400주년이
다. 그래서 임진왜란이 주는 역사적인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롭다.
특히 釜山은 우리나라의 關門으로서 임진왜란의 발발과 함께 왜적의
첫 上陸地點이 되어 전화를 당하였던 곳이었다. 그래서 임진왜란에 있
어 부산이 차지하는 위치는 그 어느 지역보다 자못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간략하게 조선시대의 부산에 대해서 살펴보자. 부산은 조선시
대에 들어와서 對日交涉關係가 빈번해지면서 나라의 관문으로서 그 중
요성이 더욱 새롭게 인식되었던 곳이었다. 즉 世宗 때에 三浦가 개항
되면서 관문으로서의 기능은 한층 강화되었으며, 그 후 中宗 39년(15
44) 경상도의 蛇梁鎭에서 왜변이 일어나자 明宗 2년(1547) 이후에는
유일한 대일 창구가 되었다.

따라서 종래 縣이었던 이 지역은 지위가 격상되어 都護府로 승격되
고 正3品 堂上官인 문관 출신의 府使가 수령으로 임명되었다. 이곳의
부사는 타 고을의 수령처럼 民政을 맡은 외에 대일외교와 교역의 임
무를 함께 맡고 있었다.

한편 이 지역은 나라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국방상으로도 중시되어
각종의 국방시설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다. 즉 임진왜란이 있기 이전
이곳에는 慶尙左道水軍節制使營이 있었고, 부산포에는 釜山僉節制使營,
다대포에는 多大鎭僉節制使營 등의 軍營이 있었다. 또 성곽도 여러 곳
에 설치되어 있었으며, 통신시설 역시 다대포의 鷹峰, 동래의 荒嶺山·
干飛鳥山 등의 烽燧台가 있어 상호 연락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일본에 파견되는 사신들도 이곳을 통해 일본과 서울을 왕래

하였다. 특히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년인 辛卯年 일본의 使者 僧 玄蘇도 이곳 부산을 거쳐 서울로 올라 갔으며, 당시 일본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우리 조정에서 일본에 파견했던 正使 黃允吉, 副使 金誠一, 書狀官 許箴도 역시 이곳에서 도일하였다.

이상과 같이 부산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 대일관계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으킨 임진왜란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 임란 당시 일본군 15만여명의 군사는 거의 전부가 이곳 부산포를 통해 침입하였으며, 이에 부산은 첫 교전지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당시 왜적이 북진하는 初程에 있었던 釜山鎮城·東萊府城·多大浦鎮城 전투에서는 임진왜란 중 가장 치열한 항전이 전개되었으며, 아울러 이들 전투들은 초전에 적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싸움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대단히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부산 일원은 임진왜란시 衆寡不敵으로 비록 함락되기는 하였으나, 타 지역에서 관군들이 도망을 가던가 아니면 쉽게 궤멸되었던 것과는 달리 軍·官·民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들에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여 항전하였던 곳이었다는 점에서 임란 당시 국난극복의 원동력을 일깨워 준 곳이었다. 그리고 부산이 함락된 후에도 살아 남은 이들 중에는 그 일부가 각지에 흩어져 의병으로 활약하기도 하였으며, 또 이 고장에 남아 있던 이들은 7년 동안 줄기차게 항쟁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사실들은 부산의 歷史와 靑史에 길이 빛나는 史績들이며, 임진왜란 발발 400주년을 맞은 올해에는 더욱 빛나는 일면이 된다고 할 것이다.

임진년 11월 이후 전쟁도 소강 상태로 접어들게 되고 강화교섭이 진행되자 1592년 明의 沈惟敬과 일본의 小西行長 일행이 일본으로 건

너났고, 이어 黃愼과 明의 楊方亨 등이 건너간 곳도 역시 부산포였다. 그 후 丁酉再亂이 일어나자 일본군은 이곳으로 다시 침입하였으며, 부산은 임진왜란 때처럼 적의 교두보가 될 수 밖에 없었다.

아름든 임란 400주년을 맞아 임진왜란의 초전지로서, 또 7여년의 전쟁기간 내내 침략의 피해를 직접 받았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부끄럽지 않은 항전을 전개했던 부산지역의 전투를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역사가 주는 교훈을 되새겨 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2. 釜山鎮城 戰鬪

1592년(宣祖25) 4월 13일 오후 5시경 적장 小西行長이 이끄는 조선 침략 선봉군인 제1군의 大軍 18,700여명의 군사는 700여척의 병선으로 부산포를 내습해 왔다.¹⁾ 이때 荒嶺山 烽火臺에서는 즉시 서울로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²⁾ 당시 釜山僉使는 鄭撥이었다.³⁾ 그는 司僕寺副正으로

1) 이 당시의 전쟁상황에 대해서는 《西征日記》, 《吉野日記》란 일본측의 기록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한편 부산진·동래부·다대포 전투에 관한 기록은 《忠烈祠志》가 기본 사료이다. 이 《忠烈祠志》는 동래 충열사의 安樂書院에 합사되어 있는 분의 기록으로 英祖 34년(1767) 당시 부사 嚴璘(璘)가 편찬하고 그 간행은 純祖 8년(1808) 당시의 吳翰源 부사 때 이루어졌다.

2) 가장 먼저 왜의 침략군을 발견하고 서울로 봉수를 올린 곳은 慶尙右道 加德鎭 鷹峰 봉수대였다고 한다; 李舜臣의 《壬辰狀草》 참조.
그렇지만 이 황령산 봉화대로 부산지역에서 서울로 연결된 直峰 중의 하나였다는 점에서 그 선후에 대해서는 자세한 고증이 필요하다.

3) 鄭撥은 本貫은 慶州, 字는 固, 郡守 明善의 아들로 明宗 8년(1553)에 출생하였으며 25세에 무과에 급제하여 宣傳官, 海南縣監, 司僕寺正 등을 거쳐 일본과의 戰雲이 짙은 때에 부산진 첨사에 발탁된 인물이었다. 한편 당일 鄭僉使의 행동에 대해서는 세가지 설이 있는데, 一說은 그 날 絶影島에 사냥갔다가 적선이 당도함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성내로 들어갔다고 하고, 일설은 일단 바다에 내려가 且戰且退하였다고 하고, 일설은 처음부터 籠城作戰을 벌였다고 한다.

있다가 무관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 正3品 堂上官의 품계인 折衝將軍으로 승진되어 부산진의 수비사령관인 僉使에 임명되었던 무장이었다.⁴⁾

이 날 적군은 상륙하지 않고 絶影島 전방에서 假泊하면서 공격은 개시하지 않고 13일 밤을 선상에서 보내었다. 다만 일몰 무렵 제1군 小西行長の 막료인 쓰시마 島主 宗義智가 약간의 군사를 이끌고 상륙하여 부산진성 부근의 경계 상황을 직접 정찰하고는 선단으로 돌아가 부산진성의 방비가 엄중하다는 것을 고니시에게 보고하였다. 이때 일본군은 ‘假道’를 요구하는 글을 목판에 써 성밖에 세웠다고 한다. 僉使 鄭撥은 이 요구를 묵살하고 성의 방비에 힘을 다하였다. 그리고는 일전을 불사한다는 굳은 결의를 하고 전투태세를 공고히 하였다.

당시 釜山鎭城은 慶尙道 해안 지방에 설치된 水軍僉節制使의 진영인 釜山浦鎭, 多大浦鎭, 加德鎭, 彌助項鎭 등 4개 鎭 가운데 경상도 제1의 鎭營이었다.⁵⁾ 그리고 부산포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왜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일본인들의 제한적인 출입이 유일하게 허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다수의 일본인들이 체류하기도 하였으므로 제1군의 對馬島軍은 비교적 부산의 지리에 익숙해 있었다. 한편 임난 당시 부산진성의 民戶는 300

4) 조선 초의 군사편제 상황은 경상도의 경우 從2品の 節度使 밑에 僉節制使가 安東, 尙州, 善山, 星州, 東萊, 金海, 晉州의 7개소에 있었으며, 水軍僉節制使가 釜山浦鎭, 多大浦鎭, 加德鎭, 彌助浦鎭의 4개소에 있었다고 한다.

5) 《經國大典》兵典 外官職條에 의하면 경상수군에 종3품의 水軍僉節制使가 지휘하는 2개의 진관이 있었다. 즉 左道の 부산포 진관 예하에는 豆毛浦鎭, 甘浦鎭, 海雲浦鎭, 漆浦鎭, 包伊浦鎭, 烏浦鎭, 西生浦鎭, 多大浦鎭, 鹽浦鎭, 丑山浦鎭의 10개 鎭이 있었고, 右道の 濟浦 진관 예하에는 玉浦鎭 등 9개의 鎭이 설치되어 종4품의 수군 萬戶가 지휘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우도의 제포진관이 왜적의 잦은 침투 때문에 전략상 가덕진관과 미조항진관으로 中宗 17·39년에 양분되었다.

여호로⁶⁾ 군민을 합하여도 적의 대군에 비교가 되지 않았으며, 병력도 불과 1000여 명이었다.⁷⁾

鄭撥은 부임 후 왜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곽을 보수하는 등 방어 태세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부산진성은 비교적 견고하였다고 생각된다. 이런 사실은 당시 성의 모습을 기록한 일본측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먼저 耶蘇會의 선교사가 쓴 《日本(西教)史》에서는 海濱에서 성에 이르는 사이에는 방어를 목적으로 말뚝을 쳐놓고 있었으며 성벽 주위에는 塹濠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하였으며, 또 《吉野日記》에는 성은 이중삼중으로 城址를 둘러놓고 또 半弓 등의 도구도 구비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

이튿날 적은 예측대로 부산포의 牛岩에서 삼분하여 결진하고는 배를 浦岸에 붙여 차례로 상륙하여 성을 공격하였다. 이 때는 6시경이었다. 적군은 성을 공격하면서 흙과 돌로써 참호를 메우면서 성벽에 접근하고 사면에서 성을 첩첩으로 포위하였다. 절대다수의 병력을 가진 적의 대군은 신무기인 鳥銃을 발사하며 성을 넘어 오려고 하였다. 이에 아군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四面에서 弓矢를 난사하며 사력을 다하여 성을 지켰다. 적군은 西門이 쉽게 돌파되지 않자, 조선군의 후방인 북쪽의 방어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북쪽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였다. 마침내 적군은 북쪽 성벽을 넘어 성으로 난입하였다.

6) 이에 대해서는 당시 일본에서 선교하다 종군했던 천주교 야소회의 포르투갈 신부 프로이스가 집필한 카톨릭 일본 전도사인 《日本史(Historia de Iapan)》에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고 있어 도움이 된다. 사실 임난 당시 적장 小西行長도 천주교도였고, 침공 일본군 중 2000여명이 천주교인이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그의 기록은 그가 몸소 견문한 기록이란 점에서 전쟁 당시의 조선 상황에 대한 귀중한 자료가 된다.

7) 프로이스, 《日本史》 참조.

이때 僉使는 군민을 지휘하여 弓矢를 난사하며 죽음을 각오하고 분전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성중은 阿鼻叫喚으로 변하였으며, 彼我間에 장열한 肉彈戰이 전개되었다. 이에 군세 抗戰도 적의 대군 앞에 차례로 많은 희생자를 내었으며, 마침내 僉使 鄭撥이 탄환에 맞아 전사하자⁸⁾ 아군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성은 곧 함락되었다. 당시 적의 만행은 극에 달하였으니, 먼저 당시 일본측의 기록에 「성중의 군대는 물론 부녀자, 어린 아이 심지어 개·고양이까지 모두 죽었다」고⁹⁾ 하였으며, 또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베어 죽었다」고¹⁰⁾ 하였으니 그 참혹상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우리측의 기록으로는 정발의 幕賓으로 성에 있다 싸움에 임했던 李庭憲의 사적에 「滿營에 해골이 쌓였다」고¹¹⁾ 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전사자를 내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부산진성의 전투시간에 대해 살펴보면, 彼我間에 차이가 있으나 宋時烈의 〈鄭公墓表文〉에는 이 날 正午에 공이 탄환을 맞아 전사하고 끝내 성은 함락되었다고 하며, 일본의 《吉野日記》에는 여섯시경에 포위하여 여덟시경에 함락되었다고 한다. 이상에서 우리는 대체로 새벽부터 적군은 군사를 동원하여 거의 한나절, 오전 중에 전투를 끝낸 것

8) 《亂中雜錄》 1, 壬辰 上, 4월 14일조 참조.

9) 이는 對馬島主 宗義智의 從軍僧 天荆의 《西征日記》에 나오는 기록임.

10) 《吉野日記》 참조.

11) 李庭憲은 公州李氏로, 字는 守卿, 進士 碩幹의 아들로 嘉靖己未(1559) 生이다. 그는 왜적이 침입할 것을 경계한 조정에서 무사를 중시함에 武科에 응시해 급제한 인물이었다. 그는 助防將으로 임지로 내려가 축성·보수하던 중 그의 용략함을 알고 정발이 간청하자 부산진성에 와서 鄭撥의 幕賓이 되어 군무를 도왔으며 난이 일어나자 鄭公과 함께 항전하다 사절하였던 인물이었다. 그는 임지가 아닌 곳에서 활약했기 때문에 그의 순절은 뒤늦게 알려졌다.

으로 보아진다.

아몽든 부산진 전투는 임진왜란시 아군이 적을 맞이하여 처음 치른 싸움으로서 아군은 군사 수와 무기 면에서 적과 비교하여 현저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사·항전했다. 그러기에 적군도 鄭僉使 등의 용전분투함을 찬양하면서 임진왜란시 가장 용감한 장수는 부산의 黑衣將軍이라고 하였다.¹²⁾ 그렇지만 일본군은 상륙 당일로 부산포진을 점령함으로서 조선군의 해안 방어 세력을 제거하고 조선 침략을 위한 海頭堡를 확보하게 되었다.

3. 東萊城 戰鬪

4월 14일 오전 釜山鎮城을 함락시킨 적군은 東萊로 진출하였다. 당시 동래는 부산진성과 가까운 거리였고, 또 부산의 행정 관할은 동래부에 있었기 때문에 적군의 동태는 곧 동래에 알려졌다. 당시 東萊府使는 文官 출신의 宋象賢으로 난이 일어나기 1년 전에 부임하였다.¹³⁾ 그는 문관 출신에다 주로 문관직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兵馬에는 익숙치 못한

12) 이는 鄭撥이 黑色 戰服을 입고 진두에서 용감하게 싸운 늠름한 기상을 적장들이 「귀국의 장수 가운데는 부산의 흑의장군이 가장 두려운 장수였으니 만일 성이 더욱 견고하고 병력이 더욱 많았더라면 우리가 끝내 함락하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한 데서 부르게 된 것이라고 여겨진다; 《尤菴集》 권 116, 東萊南門碑 참조.

13) 宋象賢은 礪山人으로 字는 德求, 호는 泉谷이며 현감 復興의 아들로서 명종 6년(1551)에 출생, 선조 9년(1576)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후 承文院 注書 겸 春秋館 記事官이 되었으며, 이어서 京城判官 등을 역임하고 선조 27년 執義로서 通政大夫에 승진되어 동래부사가 된 인물이다.

처지임에도 국사에 대한 충성이 강하였으며 유교적 교양을 지닌 사람으로 확고한 대의명분의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부임한 이래 정성으로 吏民을 교화하여 민심이 그를 따랐다고 한다. 그리하여 조만간 일본의 침입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주어진 권한 하에서 수성의 계획을 세우고 일단 유사시에는 배운 바에 부끄럽지 않게 성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다.

송부사의 수성 계획은 일차적으로는 이 지역의 兵權을 가지고 있던 慶尙左兵使의 군과 인근 郡縣의 군사의 힘을 빌어서 싸울 예정이었다.¹⁴⁾ 당시 경상좌도 군사책임관인 慶尙左道 兵使는 李珣이었다. 이 병사는 일본 침입의 급보를 蔚山 左兵營에서 받고 휘하 사졸을 데리고 동래부로 달려갔다. 이때 동래부의 인접 고을인 梁山의 군수도 약간의 병력을 이끌고 동래성에 집결하여 동래부사와 함께 방어 대책을 강구하였다.

-
- 14) 당시 조선의 군사체계는 초기의 鎭管體制 대신에 制勝方略의 분군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동래는 世祖 3년(1458)에 경상도 8개 진중의 하나였던 左兵營 蔚山鎭의 예하에 속했던 縣이었으나, 그 후 대일관계가 증시되면서 都護府로 승격된 곳이었다. 그런데 임진왜란 때의 군사체계는 제송방략 체제였다. 여기서 제송방략이란 해당 지역 수령들에게 사전에 담당 방어지역을 배정해 주고, 유사시에 자신의 진관지역에서 담당 방어지역으로 병력을 이동시켜 방어 임무를 수행케 한 제도였다. 그래서 이 제도는 제한된 지역에 침입한 소규모의 적에 대해서는 최일선에 병력을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들 병사를 지휘할 총사령관인 京將이 중앙에서 현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시차상의 문제점과 후방지역이 일시에 공백화할 취약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慶尙監司 金暉는 당시 聞慶 이하의 모든 群縣의 병사를 大邱에 집결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 부산지역에서는 적의 침략을 받게 되자 인근 군현의 군사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되어 싸우기도 전에 함락되고 말았으니 이에서 제송방략 체제의 모순점을 알 수 있다.

그 때의 좌병사 군의 동정을 《壬辰東萊遺事》에서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¹⁵⁾

「적이 승전의 기세를 타고 바로 동래부로 향하였는데 부사 송공 상현은 南門樓에 올라가 성을 지키면서 적에 대비하였다. 이날 아침에 좌병사 이각이 변을 듣고 달려와서 성중으로 들어왔다. 그는 步卒 수백명을 호출하여 助防將으로 하여금 연격케 하였다. 그는 부의 남쪽 10里 쯤에 이르렀다가 곧 돌아와 보고하기를 적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 당할 수 없다고 하니, 각이 말하기를 부사는 마땅히 이 성을 지켜야 할 것이요, 우리는 뒤에서 계속 지원할 것이다 하고는 곧 조방장과 함께 성문을 열고 도망하였다」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좌병사가 성중으로 들어온 일시와 후퇴한 일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4일 저녁에 입성하여 15일 아침에 후퇴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직접 부사의 명령계통은 아니나 당시 부산 해안 방어를 책임지고 있던 인근의 경상좌도 左水營의 水使는 朴泓이었다. 그는 부산 포에 적의 대군이 밀어 닥치자 재빨리 성을 버리고 달아났으며,¹⁶⁾ 慶尙監司 金勝은 晉州에서 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동래로 향해 출발했으나, 도중에 적이 접근해 왔다는 소식을 듣자 右道로 되돌아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列邑에 격문을 발하여 民으로 하여금 적을 피하라고 하였다 한다.

15) 《忠烈祠志》에 실려 있는 〈壬辰東萊遺事〉는 孝宗 때 동래부사로 재위하였던 閔鼎重이 쓴 글로서 현종 9년에 撰하였다. 이 기록은 임난이 끝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은 때의 기록이란 점과 함께 당시 동래성 전투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은 기록이다.

16) 《然藜室記述》 권 15, 〈宣祖朝故事本末〉 壬辰倭亂 大駕西狩, 4월 17일조 참조.

그리하여 동래성은 府使의 遺詩에 「孤城月暈 列陣高枕」이란 詩句와 같이¹⁷⁾ 孤立無援의 상태였다. 다만 梁山郡守 趙英珪가 부사 송상현과 함께 군민을 지휘하며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특히 조영규는 무과 출신으로 송부사에게는 전쟁을 치르는 동안 큰 힘이 되었다고 보아진다.

한편 동래성에 적이 침입한 시기에 대해서는 동래성에 적군이 침입한 것은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14일로 그들은 여세를 몰아 내침하여 포위하고 15일에 공격을 개시하여 전투를 펼쳤다는 설과, 15일에 내침하여 전투가 전개되었다는 설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宋時烈이 찬한 〈宋公行狀〉에는 15일에 부성에 進逼하였다고 하고, 역시 송시열이 찬한 〈神道碑銘〉에도 15일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송시열이 찬한 〈忠烈碑記〉와 〈壬辰東萊遺事〉 등에서는 적이 14일 바로 동래성을 포위하고 15일 공격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일본측 기록인 宗義智의 從軍僧 天荆의 《西征日記》에는 13일(日曆 13일은 우리나라 역으로 14일) 즉시 동래로 나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우리는 14일에 일부의 적군이 동원되고 15일 주력부대가 동원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아무튼 적군은 부산진성을 함락한 후 그 여세를 몰아 동래성으로 진격해 왔다. 송부사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대비하고 있었다. 당시 일본군은 3개 隊로 나누어 한 대는 荒嶺山 기슭부터, 한 대는 서편 大路로부터, 또 한 대는 聚兵場으로부터 바로 남문으로 향하여 날이 저

17) 이는 宋象賢이 장렬한 전사 직전에 자신의 부채에 썼던 글귀로 《老峰集》卷十, 雜著 〈壬辰遺聞〉에 나온다.

물기 전에 세 겹으로 성을 포위하였다.¹⁸⁾ 일부의 적군은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 聚兵場에 집결하고는 먼저 100여 명의 군사로 하여금 「싸우려면 싸우고 싸우지 않으려면 길을 내놓아라. [戰則戰矣 不戰假道]」라고 쓴 목패를 남문 밖에 세워 동래성 군민들의 항복을 촉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내고 갔다. 그 표목을 본 송상현은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내주는 어렵다. [戰死易 假道難]」는 글을 쓴 목패를 적중에 던져 단호한 항전 의지를 표시하였다.¹⁹⁾

이어 적군은 동래성에 대한 항복 권유를 포기하고 15일 마침내 전면공격을 개시하였다. 적은 동·서·남 세 방면에서 조총을 난사하면서 성을 넘어려 하였다. 아군은 사력을 다해 응전하였으며, 宋府使는 南門樓에서 지휘하였다. 당시 아군의 주된 무기는 활·칼·창·石弩 등이었고 砲나 火箭을 사용하였는 지는 알 수 없다. 남문에서 쌍방이 사력을 다해 격전을 치루었으나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이에 적은 後山인 동북쪽 산의 경사진 산복의 성벽을 파괴하고 그 곳으로 怒濤와 같이 난입해 들어왔다. 순식간에 성내는 대혼란 속에서 한동안 阿鼻叫喚의 대접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 싸움은 일본군의 제1군의 將 小西行長이 직접 지휘하였으니 그 병력의 규모를 짐작케 한다. 그 때의 상황은 「총성은 울려 퍼지고 그 劍光은 百日을 무색케 하면서 차례로 적군은 성중에 사람으로 메우다 시피 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한 기사에는 「성은 협소하고 사람은 많은 데다 적병 수만명이 일시에 성으로 다투어 들어오니 성중은 메워져

18) 이에 대해서는 《忠烈碑記》에서는 다만 「敵遂圍之三匝」이라고 하였으나, 《壬辰東萊遺事》에서는 「敵兵遂分爲三 一自荒嶺山底 一自西大路 其一自聚兵場 直向南門 日未暮 圍城三匝」라고 기록되어 있다.

19) 이상의 두 귀절은 《忠烈祠志》에 실려 있는 〈壬辰東萊遺事〉에 나온다.

움직일 수 없었다」고²⁰⁾ 하였다.

이에 당시 군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민중들도 싸웠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저항이 전개되었다. 무기를 갖지 못한 성민들은 혹은 도수로 적에 부딪치고, 혹은 막대기를 휘두리며, 혹은 팽이·낫·도끼·칼 등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지고 싸웠으며, 심지어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거두어 적을 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워낙 많은 적의 대군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대세는 시시각각 우리 측에 불리해 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宋象賢이 적군에게 포위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송부사는 문인답게 죽을 각오를 표시하면서 胡床에 걸터앉아 朝服을 가지고 오게 하여 갑옷 위에 입고 의연한 자세로 움직이지 않았다. 당시 적은 송부사를 생포하려 하였던 것 같다. 그런데 적중에는 조선에 내왕한 바 있던 平調益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송부사의 혜택을 많이 입었고, 또 인격에 감화받은 바도 있었다. 그는 평소에 송부사의 은혜에 보답할려 하였는데 이렇게 대하게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리하여 그는 송부사를 피신시키려 했으나 송부사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조용히 호상에서 내려 北向四拜하고는 붓을 잡아 부채에 다음과 같이

「외로운 성에는 달이 흐려지고 다른 城鎮에는 지척이 없다. 군신의 義가 무거우니 부자의 恩情 어찌 가벼우리까.」

라고 글을 써서 부모님께 하직의 인사를 사람을 시켜 보내었다. 이윽고 적병은 그가 굴하지 않을 것을 알고 칼을 들어 살해하였다. 뒤에 적장 宗義智 등은 탄복하고 송부사를 살해한 자를 죽였다고 한다.

20) 《忠烈祠志》〈壬辰東萊遺事〉 참조.

이때 府使 주위에는 軍官 宋鳳壽, 金希壽 등 4·5명, 鄉吏 大宋伯, 小宋伯, 官奴 鐵壽·邁同 등이 좌우에 서 있었는데 적병들이 앞으로 다가오자 격투 끝에 송부사·김희수·대송백 등은 전사하였으며, 부사를 도우려 왔던 梁山郡守 趙英圭 등 군민 다수도 차례로 전사하였다. 이 동래부 전투에서 이름을 전하는 자는 송부사의 측근으로 從行人 申汝魯·金蟾, 敎授 盧蓋邦, 校生 文德謙 등이며, 부민으로는 다만 朴祥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二村女 등이 전한다. 이들은 대부분 장렬하게 전사하였다.²¹⁾

당시의 동래부는 부산진보다 큰 고을이었고, 부사가 소임을 맡고 있는 지체 높은 고장이었다. 이 때문에 적군은 이미 부산진 전투에서 조선민의 굳센 항전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대군을 동원하여 일시에 동래성을 공략하려고 하여 일대 격전을 치루었던 것이다. 이에 동래성 전투는 15일의 경우 시간적으로 보면 부산진 전투보다 전투 시간이 짧았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대격전은 우리 측에 많은 희생자를 내게 만들었으니, 당시 군민이 전사한 상황은 〈趙公遺事記〉에 보면 「조군수의 아들 廷老가 부친의 유해를 찾으러 동래성에 가 본 즉 가득히 시체가 쌓였으니 부친의 유골을 찾을 수 없었다」한 글과, 임진왜란 17년 후 동래부사로 온 李安訥의 〈東萊孟夏有感〉이란²²⁾ 詩 중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4월 14일 平明에 집집마다 곡소리가 일어나 老吏에게 물으니, 바

21) 동래성 싸움에서의 왜군의 전과에 대해서는 《西征日記》에서는 참수 3천여명, 포로 5백여명이라 하였고, 프로이스는 조선군 전사자가 약 5천여명이라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전과는 전공을 높이기 위해 과장했을 수도 있어 그 숫자에는 일반 민간인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22) 이는 영조 16년(1740) 동래부사 朴師昌 때 간행된 《東萊府誌》에 기재되어 있음.

로 이 날이 임진년 성이 함락된 날이란 것이었다. 당시 송부사를 쫓아 성중에 모였던 지방민들은 같은 시간에 피바다로 변하고 쌓인 시체 밑에 투신하여 생존 자는 천·백명 중에 한 두명 정도였으며, 祖孫·부모·부부·자매간에 무릇 생존한 자는 이 날에 죽은 친족을祭하고 통곡한다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노라니 노리는 다시 말하기를, 「곡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슬프기가 덜한 것이니, 휘두르는 적의 白刀 아래 온 가족이 다 죽어서 곡해 줄 사람조차 남기지 못한 집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었다고 하였으니 그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다.

4. 多大浦鎭 戰鬪

부산진성을 함락시킨 고니시 군은 그 기세를 타고 인접 지역의 西平浦와 多大浦鎭을 공격하였다. 이 두 진영의 전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당시 서평포·다대포·부산포는 모두 지금의 부산 영역이나 부산포보다 군사적 지체도 낮고 고을 규모가 작으며 당시로 보아서는 외떨어진 곳이라서 당시 상황을 전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당시 다대포 첨사 尹興信은²³⁾ 인종1년(1545)에 賜死된 尹任의 아들이라고 하니, 혹시 그런 인간 관계에서 이곳 다대포에 온 것이 아닌가 여겨지나 국사에 순국한 사람의 일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음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전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영조 33년(1757) 당시 동래부사를

23) 尹興信은 본관이 坡平으로 인종 때의 외척으로 권세를 누렸던 尹任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는 鎭川縣監을 거쳐 1592년 다대포 첨사로 향전 순국한 인물이다.

역임한 副提學 趙曦의 다대포침사 〈尹公戰亡蹟叙〉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懲毖錄》을 본 바에는 다대포 침사 윤공신이 力戰하여 전사하였다 하고, 또 《再造藩邦志》에는 왜적이 分兵하여 서평을 함락하고 다대포를 침입하자 침사 윤공신이 역전하여 피살되었다 하였는 바, 《정비록》은 선조 때의 相臣 柳成龍이 찬한 것이며, 《재조변방지》도 東陽尉의 胤子 申靈이 찬한 바로 당시의 문헌을 고증하였을 것이니 믿을 만한 것인데, 임진난 후 영조 33년 본인이 동래에 부임하여 충렬사에 배향한 즉 송부사·정침사만 배향하고 있고 심지어 향리·노예까지 모시고 있으나, 윤공 혼자만 참여되어 있지 않음을 이상하게 느껴 邑誌를 詳考하고 변두리인 本浦를 방문하였으나 세월이 오래되어 밝히지 못하였고 後裔 또한 알 수 없으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한편 그 뒤 영조 40년(1764) 당시 동래부사였던 姜必履도 〈尹公死節記〉를 지어 다대포 침사였던 윤침사의 전공이 밝혀지지 않음을 애석히 여기고 있음에서 임진왜란 후 영조 연간까지는 사적이 잘 전하여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뭇튼 임진왜란 초전에 都體察使로서 전국을 지휘하였던 柳成龍의 《정비록》에도 기록이 있으며, 조정에 있었던 申靈의 《재조변방지》에도 개재되어 있고, 편찬 연대는 알 수 없으나 《國朝戰亡人施食冊字》에도 다대포 침사의 이름이 있음에서 다대포에서도 항전이 있었음은 확실하다고 보아진다.

당시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는 영조 40년의 부사였던 姜必履는 항전 끝에 성이 함락된 것을 윤공사절기에서 15일로 보고 있다. 그러나 正祖 5년(1782)에 찬한 洪鐘應의 〈僉使尹公興信殉節碑文〉을 통해서 당시 전투상황의 일면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 볼 수 있을 뿐이다. 비문을 소

개하던 다음과 같다.

「釜山鎭城을 함락한 왜군이 군사를 나누어 그 선봉군이 다대를 포위하였다. 이에 첨사는 힘써 싸워 적을 격퇴하였다. 그 때에 휘하의 한 군사가 말하되, 머지않아 적이 반드시 대거 침공해 올 것이니 피하는 것 밖에 도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아뢰니, 공이 꾸짖어 말하기를 오직 죽음이 있을 뿐이다라고 대답하고 결사의 뜻을 피력하였다. 그 다음날 드디어 적의 대군이 침략하여 오니 첨사는 휘하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 興梯와 함께 적군에 뛰어 들어 분투를 거듭하다가 장렬한 전사를 하매, 이에 성도 함락되었다.」

이를 통해 다대포진의 전투도 격렬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기록 검토를 통해 우리는 14일 부산진성이 함락된 후 적군의 일부 병력은 동래로 향하고, 나머지 소수의 병력으로 다대포를 포위하였으나 격퇴를 당하고, 다음날 15일 동래성과 함께 다대포성도 적의 대군의 공격을 받아 함락되었으며, 이와 함께 尹僉使도 사절하였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일본군들은 상륙 이후 경상도 해안 지역의 요충인 釜山鎭과 多大浦鎭을 점령함으로써 조선군의 해안 방어세력을 제거하고 해두보를 확보하게 되었다.

5. 水營城 戰鬪

임진왜란 당시 水營은 동해쪽의 해상방어를 담당했던 水軍總指揮官이었던 左水使의 鎭營이 있던 곳으로, 수사의 품계는 武官 출신의 正3品이었다. 그래서 부산 인근의 海城들은 그의 관할 아래 있었으며, 이 때문에 적과의 일대 접전이 가능할 수 있었던 곳이었다. 그러나 관할 사령관이었던 수사 朴泓의 도망으로 지리멸렬되고 쉽게 적의 수중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후 적의 치하에서 이곳에서는 생존을 위한 자발적인 항전이 전개되었으니 이를 水營抗戰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이 左水營城의 전투는 동래·부산·다대포의 경우와는 그 성격이 상이한 전투였다. 그러나 이곳의 전투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전투상황과 병력상황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懲毖錄》의 기록에 左兵使 朴泓은 적세가 큰 것을 보고 성을 버리고 달아 났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에 적군이 이곳을 침공할 당시 바로 군·관·민의 저항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으며 적군이 침입한 날짜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다행히 수영 군민의 항전에 대해서는 정조 17년(1793) 水軍節度使 張寅植이 찬한 〈水營義勇碑銘〉에 가장 자세한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래가 먼저 적봉을 당하고 府鎮이 차례로 함락되어 순절하고 義에 순한 자들은 史籍에 기재되어 日星과 같이 빛나거늘, 이 수영만은 主將이 전사하지 아니한 고로 왜의 명령에 위협을 받고 말을 천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과히 여길 것이 없다. 그러나 비록 이 같은 이가 충의를 분발하여 적을 죽이더라도 사적이 泯沒하여 전하지 아니하니 참으로 애석하다. 난후 17년에 부사 李安訥이 7년의 水陸戰陣의 사적에서 25명의 의사를 찾았다.」

이를 통해 추측해 보면 당시의 慶尙左水使 朴泓은 부산에 침입한 적세가 너무 창궐하여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처럼 주장이 달아나자 군사들도 흩어져 버렸으며, 이런 혼란 속에 적군이 침입하여 수영성을 점령하였다. 그런데 그 후 이곳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은 民財와 가축을 탈취하고 인신을 겁탈하는 등 온갖

만행을 자행하였다.

이에 주둔하던 적의 만행을 보다 못한 군민들이 軍을 형성하여 게릴라 전법으로 7년간 水陸 양면으로 적과 싸웠다. 특히 이들의 활약은 그들간에 하나의 동지적인 결합으로 무기와 식량을 스스로 마련하여 적을 유인·사살하고, 적의 양곡을 탈취하는 등 왜군이 진주하던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인 항전을 전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이 수영성의 전투는 왜적의 점령하에 그 곳에 잔류하고 있던 민중과 水卒들이 왜적에 의한 경제적 수탈과 부역의 동원을 견디다 못해 자기 자손과 가산을 보존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郷土防衛意識에서 일어나 저항한 民의 抗爭이란 점에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중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던 사람들을 水營 25義士라고 한다. 그들의 이름은 金玉戒, 李希福, 鄭仁疆, 崔汗連, 崔松棄, 崔汗孫, 崔守萬, 崔莫乃, 朴枝樹, 崔耄良, 金彭良, 金達亡, 朴應福, 金德奉, 沈男, 李實貞, 李銀春, 金許弄, 鄭壽元, 朱難今, 朴林, 金從守, 辛福, 金進玉, 李壽이다.

6. 東萊府民의 義兵活動

이상의 전투들 외에 당시의 각박한 상황 속에서 살아 남기를 도모했던 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의병에 가담하여 적의 토벌에 앞장 섰던 사람들도 있었다. 부산에서는 대표적인 것이 東萊의 24別典功臣으로 이들은 각지에서의 의병활동에 참가하였다. 즉 4월 15일 東萊城의 항전에서 살아 남았던 壯丁들은 민족의 울분과 가족·친지의 죽음에, 또 향토가 유린당한 상황에서 적개심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에 그들 중에는 고향을 떠나 각지에서 봉기하고 있던 의병에 참가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한 사람들도 있었다. 즉 그들 중에는 의병장

權應銖나 郭再祐의 휘하에 들어간 이도 있고, 동래 출신의 의병장 金廷瑞·金一德의 휘하에 참가하여 분전한 이도 있었다. 이들 외에도 여러 곳에서 전쟁 중에 활약한 이가 많았다. 그 중 임진왜란 후 錄券에 실린 공신은 66명이나 되었는데, 府使 李安訥이 부임하여 와서 여러 부로에게 문의하여 66명 중에서 두드러지게 뛰어난 24명을 선정하였다.

이들을 흔히 別典功臣이라 일컫기도 하며 24功臣이라 하기도 한다.²⁴⁾ 그들의 증직과 이름을 들면 다음과 같다. 兵曹參議 金廷瑞·鄭承憲·文世輝·鄭順·金一介·金一德·宋昌文·金根祐·李彥弘·金達·宋南生·皇甫祥, 掌樂院正 吳鴻, 訓練院正 金琦·金屹·金大義·金福·李應弼, 軍資監主簿 朴仁壽, 司宰監僉正 姜介連, 司導寺僉正 宋繼男, 司宰監僉正 吳春壽, 軍資監判官 李福·宋義男 등이다.

이들을 분류하면 東萊 義兵長 金廷瑞의 진에서 활약한 자가 宋昌文 외 5명, 金一德의 진에서 활약한 자가 金屹의 2명, 독자적인 의병활동을 한 경우가 鄭承憲의 3명, 權應銖 軍에 從軍한 金達, 官을 배반하지 않은 자가 朴仁壽의 2명, 임난 초부터 적에 附逆하지 않고 力戰한 자가 宋繼男의 4명으로 모두 24명이다. 아 물론 이들은 신분이 대부분 천인·농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金廷瑞 등을 중심으로 한 항일투쟁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하였다. 이후 이들에게는 난후 모두 세차례에 걸쳐 贈職이 있었다.²⁵⁾

한편 이외에 66공신에 속하는 나머지 공신 42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24) 《忠烈祠志》附錄二 別典功臣條 참조.

25) 여기서 제시한 贈職은 3차의 것으로 영조 45년(1769) 觀察使 金漢耆가 狀請하여 행해진 것이다. 그런데 위의 24공신 중 姜介連 등 5인은 역시 은전을 입었으나 후손이 없어 職牒을 구하지 못해 2차시의 증직을 그대로 썼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忠烈祠志》附錄二 別典功臣條에 상세히 나와 있다.

인 기록이 없지만, 功臣錄卷을 통해 11명을 더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을 분류하면 宣武原從功臣 2등으로 동래성 전투에서 활약하다 나중에 郭再祐 군에서 활약했던 文道明과 활약을 알 수 없는 宋龍景·李成春, 宣武原從功臣 3등으로 家僮을 이끌고 동래성 전투에 참전해 군량을 조달했던 朴天樞, 金廷瑞 군에서 활약했던 文澤龍, 동래성 전투에서 역전했던 金好義·金士偉·朴驚立·鄭彥龍, 양산에서 절의를 지키다 일본에 피납되어 갔던 鄭好仁, 그의 활약상을 알 수 없는 李春祥 등이다.²⁶⁾ 그렇지만 이들이 모두 동래전투에서 활약했는지와 66인의 공신에는 속하지만 활약상을 전혀 알 수 없는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고증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7. 釜山浦 海戰

임진년 4월 13일 왜의 대침이 있자 당시 慶尙道の 해안 방비를 총책임지고 있던 慶尙左水使 朴泓은 도망해 버렸고, 慶尙右水使 元均도 먼저 상륙한 적의 기세가 큰 것을 보고 적의 기세에 눌려 아예 출격도 하지 않고 전함 100여 척과 火炮·軍器를 모두 해중에 격침시켜 버려리고, 홀로 裨將 李英男·李雲龍 등과 4척의 전함에 나누어 타고는 昆陽 海口로 분주해서 육지에 내려 적을 피하고자 했다. 이에 수군 만여

26) 이 문제에 대해서는 李泰吉의 〈忠烈祠의 合祀에 관한 고찰〉《대연논문집》 창간호, 1983년을 참조. 여기서 李泰吉씨는 宣武原從功臣 1등으로 李舜臣 휘하에서 활약하다 부산포해전에서 전사했던 丁哲과 丁麟을 합쳐 모두 13명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분이 동래부 66공신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라도 출신 수군이기 때문이다.

명이 모두 해산되고 말았다.²⁷⁾

이처럼 수군이 스스로 무너진 것은 왜군의 상륙을 용이하게 한 요인이 되었다. 이런 일이 있자 栗浦 萬戶 李英男과 玉浦 萬戶 李雲龍이 元均에게 이곳을 버리면 全羅·忠淸道도 위태로울 것이라고²⁸⁾ 항의하면서 호남의 원병을 청해 와서라도 이곳을 사수할 것을 역설하였다. 이리하여 元均과 李雲龍은 露梁에 물러나 있고, 李英男이 全羅左水使 李舜臣에게 달려가서 원군을 요청하였다.

경상도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자 李舜臣은 휘하 장수를 소집하여 이를 의논하였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樂安郡守를 비롯한 대부분의 장수들은 경상도의 출격에 대해 本道의 수군은 마땅히 본도를 지켜야 할 것이며, 영남에 들어온 적을 친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라는 관할론을 내세워 반대하였다. 그러나 光陽縣監 魚泳潭, 軍官 宋希立, 鹿島萬戶 鄭運 등은 慶尙道도 우리의 국토이며, 왜는 國敵임을 주장하면서 원군·참전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⁹⁾ 이러한 의견에 접한 李舜臣은

「적의 기세가 마구 뻗쳐서 국가가 위태롭게 된 이때, 어찌 다른 道의 장수라고 핑계하고 물러나 자기 境界만 지키고 있을 것이냐. 내가 시험삼아 물어본 것은 우선 여러 장수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은 다만 나아가서 싸우다 죽는 것 밖에 없다. 감히 반대하는 자가 있으면 목을 베리라.」

라고 하고 경상도로 출병을 결정하였다.

한편 李舜臣은 4월 29일에 右水使 元均으로부터도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았다.

27) 《懲毖錄》卷一 참조.

28) 《忠武公全書》卷十三 附錄 참조.

29) 《白沙集》朝野僉載 참조.

「敵船 500여척이 釜山・金海・梁山江・鳴旨섬 등 여러 곳에 정박하여 제 마음대로 육지에 올라가서는 沿岸을 점령하니 각 고울과 浦口, 우리 兵營과 水營이 거의 다 함락되어 봉화가 끊어진 것이 분통합니다. 그래서 본도의 수군을 뽑아 출동시켜 적선 10여척을 분멸하였지마는 나날이 적병은 늘어 그 형세가 날로 성해져서 적수는 많고 우리는 적기 때문에 적대할 수 없으며, 本營도 이미 함락되었으니 이제는 두 道가 합세하여 적선을 공격하면 육지의 왜적들이 뒤를 염려하게 될 것이니, 貴道의 軍船을 남김없이 거느리고 唐浦 앞바다로 급히 나와 주시오.」

이를 통해서 경상도 元均의 수군도 이 무렵에는 군사활동을 다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李舜臣은 4월 30일 출동하려 하였으나 경상도의 전황이 함대를 움직이기에 극히 불리하여 출동을 부득이 연기하였다. 그 후 이순신은 5월 4일 金羅左水營인 麗水를 출발하였다.

그리하여 그 유명한 玉浦・赤珍浦・唐浦・唐項浦 등에서 대승을 거두고, 7월 6일 閑山島에서 임진왜란기의 전세를 역전시킬 대전과를 거두었다. 이 대첩으로 적 수군의 서해 진출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동시에 그들 육군의 진출을 어렵게 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적 수군의 주력이 궤멸됨에 따라 일본 본국과의 교통・보급이 위협을 당하게 되어 일본의 군사는 반도에서 고립되게 되었다. 한편 우리 측으로서는 전라・충청으로부터 황해・평안에 이르기까지 군량의 보급 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국가의 傳通路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이 대승을 계기로 각지의 의병 봉기가 활발하여 지게 되었다.

이 閑山島에서 패전의 소식을 접한 加藤清正은 7월 14일 수군의 장 脇坂安治를 질책하고는 巨濟島에서 축성하여 수군의 九鬼嘉隆・加藤嘉明 등과 같이 수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당시 일본의 수군은 조선 수군과의 전쟁을 피하고 해안 포구에서 대기만 하고 있을 정도로

수세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거제도·김해·창원 등지는 그 지방에 있던 육군과 상륙한 왜의 수군 패잔병이 군집하여 이곳 주민들을 약탈하면서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한편 이순신은 閑山島 海戰에서 돌아온 후 다음의 전투를 위해 1000여 石의 군량을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全羅水軍이 巨濟 방면 閑山大捷에서 왜적 水軍의 大軍을 섬멸하자, 남은 적의 주력 水軍은 釜山浦에 집결하고 있었다. 이때 李舜臣 軍은 한산도대첩 후 8월 1일 남은 수군을 중심으로 全羅右水使 李億祺의 군과 합류, 麗水 앞바다에서 연합함대를 구축하였다. 당시 편성된 艦船數는 戰船 74척, 挾船 92척, 도합 166척이었다. 이 전라수군은 연일 맹연습을 거듭하였다.

이때 慶尙右道 巡察使 金昉로부터 내륙으로 쳐올라 갔던 적군들이 포획한 물건들을 가지고 낙동강을 통해 도망가려고 한다는 通牒이 전달되었다. 이 공문을 받은 李舜臣은 8월 24일 釜山 방면으로 출동을 결정하였다.³⁰⁾

8월 24일, 右水使 李億祺와 李舜臣의 수군이 申時에 麗水를 떠나 泗川 毛思浦에 이르자 동이 트기 시작했다. 8월 25일, 蛇梁 앞바다에서 경상우수사 元均을 만났다. 이순신과 원균은 작전을 상의하고 이 날 申時에 唐浦에 도착하여 여기서 정박하였다. 8월 26일, 見乃梁 앞바다에 나아가서 그 곳에서 전라좌수사 李億祺, 順天府使 權俊 등과 함께 작전을 협의하였다. 이 날 저녁 배를 옮겨 角呼寺 앞바다에 정박하였다. 8월 27일, 李舜臣이 漆川島에 이르니 熊川縣監 李宗仁이 와서 왜의 머

30) 이하의 부산포 전투상황은 《亂中日記》〈釜山破倭兵狀啓〉 및 기타 문헌을 참고하였다. 그렇지만 이 기록은 해전의 전체 모습을 기록한 것이라 보아지나 이순신의 全羅左道軍士에 관한 것이 주가 되고 있어 全羅右道軍士나 慶尙右道軍士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어 유감스럽다.

리 35級을 배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다시 전라우수사와 작전을 협의한 후 함대를 거느리고 어두운 밤을 이용하여 安骨浦에 나아가 부근의 薺浦·西院浦에서 밤을 세웠다. 이처럼 당시 李舜臣은 타 관할권에서의 싸움에 몹시 긴장하였던 것 같다. 8월 28일, 西院浦에서 이순신은 육군의 병사인 體探人으로부터 固城·鎭海·昌原兵營 등지에 주둔하고 있던 왜적이 금월 24·25일 모두 도망하였다는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였다. 이 보고에 접한 이순신은 이른 아침 함대를 거느리고 행동을 개시하여 수색작전을 펴면서 양산강·김해 등지로 향하였다.

그때 마침 九谷浦에서 전복잡이를 한다는 鮑作 丁末石이 적에게 포로되었다가 탈출해 와서 김해강에 정박해 있던 적이 沒雲台 밖으로 도망을 하고 있음을 알려 주었다. 이 정보를 접한 우리 수군은 긴장하였다. 그리하여 이순신은 대부분의 전함을 加德島 북쪽 서편에 엄폐시키고, 李舜信과 魚泳潭으로 하여금 가덕 외양에 잠복케 한 후 探望船으로 하여 양산 등지의 왜선을 정찰토록 하였다. 그러나 종일 적정을 살폈으나 별다른 일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일단 加德島의 天城 船艙으로 함대를 집결시켜 밤을 세웠다.

8월 29일, 천성을 출발한 우리 수군은 날이 밝을 무렵 殘賊이 출현한다는 양산강·김해강 河口 앞바다에서, 大船과 小船 6척에 분승한 잔적 30여명이 우리 수군을 보고는 배를 버리고 육지로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이에 경상수군의 전함과 左別都將 虞侯 李夢龜 등이 추격하여 작은 배 4척과 큰 배 1척을 불태웠다. 이와 같은 전과를 올린 우리 함대는 좌우로 나누어 두 강으로 진격하였으나 江口가 협소하여서 板屋船으로는 싸울 수 없었다. 거기에 날도 어두워져 함대는 가덕도 북방으로 돌아와 밤을 세웠다. 이 날 밤 李舜臣은 李億祺·元均, 助防將 丁

傑 등과 함께 밤을 세워가면서 앞으로 수행할 작전을 숙의하였다.

이처럼 이미 우리 수군은 부산포로 오는 도중 여러 차례의 전투를 치렀으며, 바야흐로 9월 1일 加德 북방을 출발하여 부산포로 향하였다. 당시 부산권역에 접어들고난 후 아침 8시경 沒雲台를 지나자 바람이 일어 간신히 함대를 정비하여 花樽龜尾에 이르렀다. 여기서 대선 5척, 多大浦에서 8척, 西平浦에서 9척, 絶影島에 이르러서는 대선 2척이 기슭에 줄지어 정박해 있었으므로 三道水使 휘하의 여러 장수와 助防將 丁傑 등이 합심하여 적의 배를 부수고 배에 가득 실린 왜의 물건과 戰具를 배에 실은 채 격파해 버렸다. 이에 당시 왜군들은 우리 수군의 기세를 보고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해 버려 다 살해하지는 못했다. 다시 우리 수군은 절영도 안팎을 뒤져 보았으나 왜선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우리 수군은 작은 探望船을 부산 앞바다로 파견해 수색케 하였는데, 얼마 후 부산진성 동쪽 산에서 삼군으로 나누어 진을 치고 있던 왜의 함대 500여척 중 선봉 4척이 草梁項에서 마주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 이때 적선이 500여척이란 정보는 아군을 흥분케 하였다.³¹⁾ 곧 李舜臣은 李億祺와 이 일을 협의하고는 여러 장수에게 우리 군사의 위세를 가지고 지금 만일 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간다면 적은 반드시 멸시하는 생각이 들 것이라 하고 하여 사기를 높이고 결전의지를 표방하였다.

이에 우리 수군들은 督戰旗를 날리고 북을 치면서 부산의 선창으로

31) 당시 적의 수군은 閑山島와 安骨浦에서의 대패 이후 소극전법을 취하면서 거의 모두가 부산포에 집결해 있었는데, 그 때 적의 병력은 1만명 가량의 육군과 8척여명의 수군, 그리고 5백여척의 배를 거느리고서 주로 해상보급만을 맡고 있었다.

돌진하였다. 당시 右部將 鹿島萬戶 鄭運, 龜船突擊將 軍官 李彥良, 前部將 防踏僉使 李純信, 中尉將 順天府使 權俊, 左部將 樂安郡守 申浩 등이 맨먼저 돌진해 들어가 적의 先鋒船 4척을 격파하였다. 그러자 그 배에 타고 있던 적병들이 헤엄쳐 육지로 도망하였다. 뒤에 있던 우리 함선들은 이 때를 타서 長蛇陣으로 돌진하였다.

이때 적들은 부산진성 동쪽 한 산에서 5리쯤 되는 언덕에서 三軍으로 나누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적함의 수는 大·中·小를 합하여 470 여척이나 되었다. 이곳의 왜선들은 우리 함대의 위세에 눌려 어찌할 바를 몰랐다. 여기에 우리 함선들이 곧장 쳐들어가자 배안·城안·산 위·窟 속에 있던 적들은 총과 활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여섯 군데로 나누어 陣을 치고 내려다 보면서 탄환과 화살을 퍼부었다. 당시 그들이 片箭을 쏘는 것은 우리와 같고 큰 鐵丸을 쏘기도 하였는데 크기가 木瓜만 하였으며, 혹은 水磨石을 던졌는데 크기가 주먹덩이만 하였다. 이처럼 부산포 해전 당시 왜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통분할 일이 있다. 그것은 적군 속에 우리 附逆者가 섞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 이 싸움에서 우리 측이 노획한 물품 중에는 長箭 9개, 地字·玄字銃筒 각 2門, 낫 1개, 大砲口 1門 등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적들이 우리의 것을 노획하여 사용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우리 군사들은 더욱 분발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해 들어가 天字銃筒·地字銃筒, 將軍箭·皮翎箭·長片箭, 彈丸 등을 쏘면서 종일 토록 접전하였다. 아뭏든 이 전투는 고지에 있던 강한 적을 바다 위에서 대항하면서 적선을 격파하였으니 地勢상 지극히 불리한 고전이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三道의 장병은 용전을 거듭하여 浦內에서 적선

100여척을 격파하였다. 또 당시 우리의 총과 화살에 사살되는 적의 수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 전투에서는 적을 사살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적선을 깨뜨리는데 주력하였다. 이에 당시 적들은 토굴 속으로 들어가기에 바빴으며, 적들의 다른 배들은 기슭에 정박한 채 겁을 내어 바다로 나오지도 못하였다.

승전을 거듭한 아군은 계속 적을 토벌하려 하였으나 중지하고 말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李舜臣의 狀啓 〈釜山破倭兵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적은 騎兵을 가진 반면 우리 수군은 軍馬도 갖지 못하였으며 병력의 숫자도 열세였고, 거기에 장기간에 걸친 항해에다 종일토록 항전했기 때문에 군사들이 피로하여 육지에서 전투를 계속하기가 어려웠으며, 날도 저물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적의 육지의 소굴과 남은 적선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한 채, 이순신은 다음에 다시 파손된 전함을 수리하고 군량을 넉넉히 준비하여 경상도 감사군과 수륙 양면으로 진격·심멸하겠다는 견해를 밝히고, 아쉬움을 가진 채 9월 1일 가덕도로 되돌아와 밤을 세우고 翌日 아침 연합함대를 해체하고 이순신의 전라수군은 여수 본영으로 돌아갔다. 이리하여 부산포 해전은 막을 내렸다.

아래에 부산포 해전에 동원된 피아의 군함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釜山浦 海戰 당시 軍艦數의 비교〉

소 속	구 분	수 량	소 속	구 분	수 량
조 선	戰 艦	74	일 본	戰艦(中)	470(釜山浦)
	挾 船	92		戰艦(大)	5(花樽龜尾)
				戰艦(大)	8(多大浦)
				戰艦(大)	9(西平浦)
				戰艦(大)	2(絶影島)
합 계		166척			약 500척

이상의 부산포 해전은 우리 함대 수가 적에 비해 3분의 1밖에 안되었으며, 또 적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군에게는 아주 불리한 여건이었다. 그리고 아군의 함대 수도 타 해전에 비해 적었으며 병사들도 오랜 항해로 지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싸워 이긴 전투로 임진왜란 중 거둔 대승첩 중의 하나였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전투는 제반 여건 때문에 적선 100여척을 격파하는 등 적군을 사살하기 보다는 적선을 깨뜨리는데 주력하여 승리를 거둔 대첩이었다. 이 전투 이후로 일본의 수군은 거의 대부분 와해되고 말았으며, 특히 全羅水軍과 慶尙水軍이 연합하여 싸워 승리를 거둔 전투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첩을 거두게 된 요인은 李舜臣과 같은 탁월한 영도력을 가진 분이 있었다는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그 휘하에는 鄭運 등과 같은 軍事에 노련하고도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다는 점과 군의 사기도 충만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상하가 혼연일체가 되어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서 일사분란하게 항전해 거둔 전승이었다고 해야겠다.

8.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펴본 壬辰倭亂 때의 釜山地方의 전투들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당시 부산 지역의 여러 城과 鎭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나서 비록 하루내지 이틀이라는 짧은 기간내에 함락되었지만, 그 전투들은 모두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던 항전이었다는 점에서 자못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적에게는 첫 상륙지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강한 저항을 받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당시 부산인들의 기개를 살필 수가 있다.

먼저 부산진성과 동래부의 싸움은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군사 수와 무기의 현격한 열세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한 전투였다는 점에서, 임진왜란시 陸戰에서 明나라의 원군이 오기 이전에 적에게 가장 많은 타격을 준 싸움 중의 하나로 평가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는 여타 고을의 관군들이 항전다운 항전 한번도 없이 적이 오기도 전에 미리 도망해 버린 것과는 무척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영성의 전투는 적의 점령지에서 왜적들이 자행한 만행, 왜적들에 의한 경제적 수탈과 부역 노동을 견디다 못해 점령지 내에서 향토수호 의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중과 수졸들에 의한 장기간의 항전이었다는 점에서 일종의 점령지 저항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래부민들의 의병운동 전개는 여타 지역에서의 의병봉기를 촉진시킨 촉매내지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釜山浦 海戰은 全羅·慶尙 양도의 수군들이 연합하여 전함과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 싸움으로 한산도대첩과 함께 임진왜란의 전세를 바뀌게 할만큼 획기적인 것이었다. 이 패배 이후 왜는 수군의 경우 서해로의 진출이 불가능해졌으며, 동시에 육군

의 진출도 어렵게 만들었다. 또 수군의 패배로 일본 본국과의 교통·보급이 끊겨 일본군은 반도에서 고립되게 되었다. 반면 우리측에서는 군량 공급기지였던 호남을 계속 보전하게 되어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부산포 해전은 임진왜란 당시의 해전 중에서도 몇 안되는 대승첩 중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임진왜란 때 군·관·민이 일체가 되어 전개한 부산지역의 항전들은 이 나라 민심을 크게 감동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난 일본군의 무자비한 蠻行과 虐殺相은 적개심을 불러 일으켜 임진전쟁에 있어서 전쟁 극복의 활력소가 되었다. 즉 부산 지역의 연이은 함락에도 불구하고 살아 남았던 주민들은 義憤을 억누를 수 없어 각지로 전전하며 임난 7년 전쟁 극복에 밀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부산지방은 왜란이 끝날 때까지 7년간 일본의 근거지가 되었으니, 어느 지방보다 전쟁 피해가 심했던 지방이었다. 이 때문에 우리 고장에는 타 지방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외침에 대한 강한 民族精氣가 약동하고 있으며, 왜적의 잔흔도 많이 남아 있다.

오늘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해외문화와 문물. 그 교류 창구인 우리의 부산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과 인접해 있었던 지리적이 여건으로 왜적의 최초 침입을 받게 되었지만, 이에 조금도 굴함없이 軍·官·民이 渾然一體가 되어 분연히 일어나 맞섰던 선열들의 그 기상과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역사는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나라의 관문을 지키기 위해 꺾기·분전한 애국애족의 숭고한 정신은 길이 후손의 귀감이 되어 부산인의 정신으로 이어져야 하겠다.